ISSN 1599-7863

박물관사람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2005년 가을 | 11호

특집 새국립중앙박물관 | **다시 읽는 선비들의 우리문화 사랑** 치마

박물관탐방 중남미 박물관 | **유물사랑** 멧돼지 두 마리 | **답사를 다녀와서** 鳴沙山 위를 나는 莫高窟의 飛天들

답사하는 방법 답사, 어떻게 해야 좋을까 | **강의를 들으며** 함께 하는 신나는 피크닉

기증유물 소리까지 아름다운 다듬잇돌 | **설문결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 엿보기

한국박물관회는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邂 逅

허전히 무너져 내렸던 마음자리에
흥건히 넘칠 듯이
무언가 다시 담기고 있었다.

달빛에 반짝이는
빛을 뿜는 歡喜의 구슬 앞에서
나도 무언가 뿜어지는
눈빛으로 웃으며 있었다.

속으로 귀를 세우고
간지럽게 속삭이는
봄볕같은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듣고 있었는듯
취하여, 나도
가만한 한 마디를
그니의 가슴에
繡놓듯 금실로 새겨서 두자.

박 남 수 (1918–1994)

최적의 전시로 최대의 감동을

10월 28일 역사적인 서막을 여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마무리 단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적 山水를 그대로 옮겨 놓은 전통 조경과 현대식 건물이 어우러져, 긴 여정을 끝낸 우리 문화유산의 보금자리로 자리 잡을 것이다. 새 박물관 미리보기는 지난 호에 이어 박물관의 전시실과 조경을 살펴본다.(편집자주)

예전의 박물관에 익숙하던 우리에게 새 박물관과의 첫 만남은 경이로움이었다. 똑같은 문화재가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을까. 친근하게 다가와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10여 년 동안 새로운 탄생을 위해 정성을 다한 사람들의 노력과 최첨단 과학의 결실이다. 어떻게 하면 최적의 전시로 최대의 감동을 찾을 수 있을까. 해답은 전시실에서 바로 보여준다. 사방에서 전시물을 감상할 수 있는 현대적인 진열장이 눈앞에서 유물들의 미세한 線까지 읽어낸다. 상상을 넘어선 놀라운 전시기법에 즐거운 기대감을 갖게 한다. 세계적으로 드문 첨단 조명시설은 전시품을 더욱 빛나게 해준다. 쾌적한 휴식 공간과 광활한 녹지 공간에서는 현실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다. 이제까지 보아왔던 박물관이 아니다. 단순한 관람위주에서 벗어난 복합 문화 공간의 始發點이다.

열린 마당에서 으뜸홀로 들어오면, 멀리 우뚝 서 있는 경천사지 탑이 우리를 맞는다. 높은 천장과 길게 이어진 역사의 길을 보며 장중한 중압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전시실을 들어선 순간 그런 염려는 말끔히 사라진다. 첫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신라의 경우 금관이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보일 듯 말 듯, 瓔珞의 떨림이 가슴까지 전해진다. 원형의 바닥에서 은은히 올라오는 신비스러운 조명은 신라의 영광을 재현시킨다. 의자에 앉아 어둠 속에서 발하는 금관의 빛을 바라보면서 동해의 아침햇살이 서라벌에

찬란히 퍼지는 것을 그려본다.

대표유물을 중심으로 시원하게, 혹은 아기자기하게 관람객의 시선을 끌어낸다. 눈을 돌리면 넓은 벽면을 이용한 그 시대의 상징물과 사진은 관람 전 事前 지식을 갖추게 한다. 곳곳에 영상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유물에 대한 설명과 용어 풀이 등을 넣어 이해를 돕고 상징그림을 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

또한 각 관마다 영상실이 있어 그 시대상을 알리며 발굴 당시의 모습, 古墳, 龕室의 모습을 재현해 관람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다른 실로 이동시, 벽면재료를 다르게 하고 그 실에 대한 年表를 붙여 공간이 바뀌는 것을 확실히 알려준다. 흥미를 끌기 위해 다른 시대의 명품을 멀리서 살짝 보여주는 엿보기 창을 만들었다.

적절한 조명의 사용은 문화재를 더욱 빛나게 해준다. 진열장내의 직접 조명인 광섬유는 복사열이 없으며 자외선 차단 필터로 가시광선만을 통과시켜 부드럽게 전시품을 어루만진다. 관람객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照度로 특수 제작하여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밝기로 맞췄다. 사랑방의 사방탁자 위에 놓여 있는 넉넉함이랄까. 독립 전시장의 윗면에 거울을 두어 아래서 올라간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유물이 더욱 돋보인다. 낮은 피아노형 전시장에는 라인형 광섬유 조명을 넣어 빛이 고르게 나와 작은 전시물을 감싸 안는다. 오랜 세월 묵묵히 이어온 先祖들의 솜씨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展示欌의 종류도 다양하게 제작하였다. 명품의 품위를 보여주는 커다란 독립장부터 입구의 낮고 자그마한 진열장, 피아노형 조감장 등 각양각색이다. 대형 벽부형 진열장은 유물을 교체 할 때, 관리요원이 전시품을 건드릴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였다. 유리가 정면에서 자동으로 열려 안전하게 전시물을 이동한다. 경복궁 시절 관람객의 몸에 묻어 들어온 미세먼지로 유물들은 몸살을 앓았다. 이를 방지하는 것이 에어 타이트, 즉 밀폐형 진열장이다. 오염 물질은 차단하고 유물의 재질에 따라 적절한 습도를 유지시킨다. 진열 공간내의 내장재도 숨쉬기 좋은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였다. 접착면들이 다소 울퉁

불통하게 나타나는 점도 감수하였다. 모든 것이 최적의 전시를 위한 배려이다. 이처럼 편안한 환경에서 문화재들은 우리를 기다린다.

다시 눈을 전시실로 돌려보자. 2층 불교 조각실은 어느 박물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연 채광을 이용했다. 불상들이 햇빛 찬란한 푸른 숲을 뒤로 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머금고 있다. 아니,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우중충한 하늘과 검푸른 숲은 백팔번뇌의 깨달음인가. 커다란 유리창 앞에 서 있는 불상들을 본 순간, 그 환하고 그늘진 부분이 햇빛 아래 자연스럽게 드러나 마치 깊은 山寺에 와 있는 듯 하다.

1층 전시실은 특이하게 바닥재로 돌을 많이 사용했다. 특히 고고관의 경우 처음 전시실이라 눈, 비 등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게 화강암을 깔았다고 한다. 화강암은 우리에게 친숙한 재료이며 선사시대 이미지와도 잘 부합된다. 중요 유물 밑에는 나무를 이용하여 돌과 차별화를 두어 돋보이게 하였다. 이처럼 바닥재 하나에도 이미지와 환경을 생각하였다.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목재를 많이 사용했다. 습기에 약하고 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나, 미관과 접촉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전시실과 전시실 사이에 독립장을 넣어 긴 동선을 끊어 관람을 편리하게 하며, 나무의자를 놓아 편히 앉아서 마음으로부터 감상할 수 있다. 나무의자는 관람 시간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드문드문 놓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수를 늘렸다. 관람객을 세심하게 배려함이 엿보인다.

전시실 중간에 있는 휴식 공간의 안락한 의자는 관람으로 지친 다리를 쉬게 해준다. 휴게실에도 유물이 전시되어 쉬면서 관람할 수 있다. 중국실의 휴게실은 작은 중국이다. 창문부터 가구까지 모두 중국식으로 꾸며져 방금 보았던 도자기의 감흥을 그대로 이어간다. 건물의 돌출 부분을 이용한 3층의 휴식 공간은 전망대의 기능도 하고 있다. 눈앞의 열린마당부터 거울못, 멀리는 溪流와 탑들까지 한 눈에 들어온다. 푸른 숲과 맑은 하늘이 눈의 피로를 깨끗이 씻어낸다. 곳곳에 자리 잡은 레스토랑과 휴식 공간은 그동안 박물관에서 부족했던 쉼터의 갈증을 충분히 채워준다.

문화재를 이해할수록 깊은 애정이 생긴다. 전시실을 돌아볼수록 더 알고 싶고 더 채우고 싶다. 이럴 때 다양한 안내 시스템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서로 유물을 인식해 설명이 나오는 MP3 전시 시스템은 관련분야 명사들이 해박한 지식으로 직접 유물을 소개해 재미를 더해준다. 또한 PDA 전시 시스템은 중요 유물에 대해 상세 검색이 가능하다. 시간 여유가 없을 때 명품 50선 등을 선택하여 감상하면 좋다. 다양한 테마 관람도 준비되어 있다. 첨단 시스템의 가동으로 박물관 측에서는 관람객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러 가지 개선점을 찾기도 한다. 여러 군데의 전시관 보기 시스템은 영상으로 미리 박물관 곳곳을 돌아보게 한다.

어린이 박물관은 직접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 학습장이다. 조상들이 살던 집에 들어가 보고, 살림도구나 농기구도 살피며 현재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본다. 갖가지 무기나 갑옷들도 만지고 입어볼 수 있다. 멀게만 느껴지던 옛 사람들의 溫氣가 어린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우리는 한 민족이고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다.

뮤지엄 숍은 박물관 1층과 3층에 자리하고 어린이 박물관 옆에는 어린이 뮤지엄 숍도 문을 연다. 개관에 맞춰 새로 개발한 품목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과 여러 가지 도서들은 또 하나의 볼거리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상품들도 기대해 본다.

새롭다는 것은 늘 신선한 흥분과 기대를 가져온다.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의 땀과 열정이 녹아 있다. 역사와 문화가 만나 복합 문화공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개관을 기다려 본다. 보고, 느끼고, 다가가면 그만큼 애정이 깊어지지 않을까……. M리

미르못가의 솔바람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여러 곳에서 값진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그중 가장 바쁜 움직임을 보여주는 곳이 박물관 조경이다. 아직 단장이 한창이라 공사장비와 사람들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경복궁내 박물관을 떠나오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주변 경관과의 이별이었다. 고즈넉한 고궁의 운치와 계절 변화를 보여주던 가로수, 그리고 아름드리 은행나무 아래서의 정담어린 기억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그 아쉬움은 조금씩 베일을 벗어가는 박물관 조경을 보면서 지울 수 있다.

새 박물관 조경의 특색은 한국적 산수를 들여놓아 자연스러운 멋을 준다는 것이다. 남산을 경관 축으로 설정하고, 후원과 계류 · 폭포 · 못 등 고유의 정원조형 원리를 반영하였다. 긴 장방형의 박물관 건물에 주변마저 고층화 되어서 조경 설계가 여러 번 바뀌었다고 한다. 깔끔하게 잔디밭으로 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시원하긴 하지만,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 없고 너무 평면적이어서 무미건조한 느낌을 주었을 것 같다. 박물관 조경은 완전한 인공 정원이나 인위적인 점을 최소화하였다. 山水와 성곽 등 전통적 환경요소를 재현했다. 5만 여 평에 이르는 넓은 공간은 크게 진입과 전시, 그리고 後庭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공간마다 일반에게 공모하여 예쁜 우리 이름이 붙여졌고, 각각의 주제가 살도록 꾸며졌다. 금강송 · 회화나무 등 대형 재래수목을 심어 건물이 주는 웅장한 이미지를 완화시켰다. 100여 종이 넘는 꽃과 풀은 개화시기를 달리하고 있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정원을 감상하게 한다. 또한 사과 · 배 · 감 등 온갖 유실수를 심어 자연의 변화를 만끽하게 했다. 먹이가 생기자 꿩이나 토끼 같은 동물들이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산에 주인이 생겼으니 진정한 의미의 산수조경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나무 · 물 · 돌이 어우러져 한국의 산자락을 연출하고 있는 미르폭포와 미르못. 이곳은 조경의 하이라이트인 셈이다. 살짝 돌아앉은 폭포에 용트림하는 모습의 海松이 기대인 듯 자리하고 있다. 연못 속 고목 한 그루까지, 자연스럽기 그지없다. 잔잔한 물안개에 젖은 미르못은 태고의 신비를 담고 있는 것 같다. 바위틈 사이로 애기 고사리 · 부처손 등 물가 식물들이 파릇파릇 돋아나오고 있다. 황토와 산돌을 이용하여 돌쌓기 방식으로 둑을 이루는 계류는 500m나 흘러서 멀리 정문 앞 나들못까지 이어진다. 용이 꼬리를 흔들 듯 굽이치는 물줄기는 상상만으로도 시원하다. 물가에는 친환경적 자연 정화방식을 위해, 습지

식물들이 심어져 있다. 관람으로 지친 발을 흐르는 물속에 잠시 넣어 보고픈 유혹이 생긴다.

건물 카페테리아에서 징검다리 포장기법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오면 말끔하게 단장된 종각을 볼 수 있다. 박물관 녹지 공간에 놓여 진 유일한 한국적 조형물이다. 눈도 마음도 푸근해진다. 瓦片과 日月무늬를 쌓고 화강암을 쿠션으로 얹어 만든 벤치가 있다. 과거와 현대의 어우러짐을 보여주는 신선한 아이디어이다. 옆으로는 우리민족의 기상을 닮아 하늘로 곧게 솟은 金剛松이 숲을 이룬다. 사이사이로 고사리나 상사화 같은 야생화가 있어 잠시 일행과 떨어져 오붓한 혼자만의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조금 걷다 보니 작은 터 하나를 만난다. 그곳은 두 불상이 모셔져 있고, 옛 집터의 모습인 듯 주춧돌 몇 개가 놓여있다. 담장처럼 둘러진 烏竹 사이로 참새 떼의 재잘거림이 바람을 타고 귓가를 스친다. 비어있는 듯 靜的인 한가한 공간이다. 조금 전 보고 나온 유물들에 대한 감흥을 되새겨 볼 수도 있고, 벗들과 無言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신라, 고려, 조선 시대의 탑들이 산책로 사이로 자연스럽게 놓여져 있다. 석탑이 동산과 어우러져 원래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한다.

각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작은 길 하나에도 여러 포장 방법을 사용하여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 마사토와 황토가 깔린 오솔길은 어딘지 모르게 정겹다. 화강석과 잔디를 조화시킨 관람로는 편리성과 조형미를 겸비했다. 하지만 종각 주변 감나무를 따라 염료 식물원으로 이어지는, 화강암 길과 넓은 중앙로를 접하면 갑자기 산속에서 현대도시로 되돌아온 느낌을 받게 된다. 인도인지 차도인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다.

정문 가까이로 넓은 잔디 광장인 어울마당이 있다.

관람 온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動的 공간이다. 정문을 들어서면 계류의 끝이며 물이 머무는 나들다리와 나들못을 만나게 된다. 이곳에는 소폭포와 기암절벽 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넓은 녹지 공간의 중심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울못은 말 그대로 투명하게 모든 것을 비추어 주는 연못이다. 한 점 더하거나 덜함도 없이 하늘이면 하늘, 보는 이의 마음이면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연못이기에 잠시 머무르고 싶어진다.

회랑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列柱와 화강석으로 포장된 큰길이 열린 마당과 이어진다. 시원함과 반듯함을 주기는 하지만,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의 반사열이 시선을 자극하고, 넓기만 한 공간이 순간 위축감을 느끼게 한다. 주변의 고층건물까지 더해져 열린 마당에서의 시야는 삭막하다. 마치 사막에 서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 멀리 눈으로 하는 借景도 좋지만 푸른 자연을 좀 더 가까이 불러들일 방법은 없을까?

후정공간 발길 닿은 곳마다 아기자기한 멋이 흐르고 있다. 花階와 3개의 煙家 그리고 와편 · 일월무늬로 정성껏 쌓아올린 꽃담을 보면서, 경복궁 交泰殿 후원인 峨嵋山을 떠올리게 된다. 여기에 세월의 손길이 더해진다면 그 느낌까지 옮겨 올 수 있을 것 같다. 장방형 연못인 심인당에는 연꽃과 수련이, 연못가엔 창포가 있어 정취를 더해준다. 다섯 단계의 침수대가 있는 수반석은 연못물을 정화하는 기능성과 멋을 적절하게 조화시켰다. 그 옆으로 전통염료식물원이 조성되어 있다. 잎이나 껍질로 색소를 낼 수 있는 당귀 · 구엽초 · 홍화 등 다양한 품종이 자라고 있으며, 여기서 얻어지는 염료들은 염색교실이나 다양한 행사에서 재료로 사용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건축물이라도 조경과 어우러짐 없이는 그 성공을 쉽게 말할 수 없다. 박물관을 감싸듯 조성되고 있는 조경은 현대적 건물이 주는 어딘지 모를 아쉬운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 아직은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지 못한 어색함도 보인다. 하지만 짧은 기간 내에 조경의 완성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작은 묘목들이 자라 숲을 이루는 것 같이, 우리 모두의 깊은 관심과 애정이 새 박물관을 멋지게 완성해 갈 것이다.

치 마

김 원 룡 (1922-1993)

어느날 집에 돌아가 보니 처가 외출에서 아직 귀가치 않아 안방이 휑하고 쓸쓸하다. 옷을 벗으려고 의걸이를 열으니까 처의 치마가 몇 개 걸려 있다. 모두 값싼 치마들이며 어딘지 초라하고 생활에 시달린 처의 모습과도 같아 꼭 처를 대하는 것 같고, 왜 그런지 연민의 정이 일어난다. 나는 양복바지 위로 그 치마 하나를 두르고 끈을 매어 보았다. 그리고 거울을 보니 꼭 머리 깎은 미친년 같아 웃음이 저절로 튀어나온다. 여자가 입으면 그렇게 어울리고 절구통에라도 치마만 두르면 여자처럼 된다는 치마인데 이건 정말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옷이다. 옷은 옷인데 아래가 훌렁훌렁해서 입은 둥 말은 둥 하며 하반신 전부가 노출된 것과 같다. 어떻게 이런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옷 같지 않은 옷을 걸치고 다리 하나를 들어 보았다. 도무지 막을 곳이 없는 옷이다.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몹시 허전한 느낌이다. 이런 옷을 입고 다니니까 남자에게 점령당하고 남자들에 눌려서 일생을 보내야 하는지 모른다.

내가 지금부터 처가 되고 처가 나의 남편이 되고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치마를 이렇게 걸쳐 입고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웃음을 멈추고 숙연한 마음이 되어 거울 앞에서 부동의 자세가 되었다. 여자의 치마에 맺힌 슬픈 사연들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들이 이 치마를 적셔 왔을까. 이 치마 밑에서 아이가 나오고 이 치마 위에서 아이가 자라고 이 치마에 설거지물 묻은 손을 닦으며 인생을 마치는 여자들, 그 모든 슬픔들을 여자의 치마는 덮어주고 가리워 주고 있다.

언젠가 경주역에서 어린 사내아이를 업은 초라한 어머니와 그 뒤를 발버둥치며 울며 붙잡는 12, 3세의 계집 아이를 본 일이 있다. 때묻은 짧은 주색 치마가 발버둥치는 무릎 위에서 펄럭거리고 있었다. 사정을 들어보니 안동에 산다는 이 어머니는 살기가 어려워서 그 딸을 경주의 어느 집에 식모로 데려다 주고 가는 길인데 그 딸아이가 저렇게 떨어지지 않으련다는 것이다.

나는 거울 앞에서 치마를 입고 서서 그때 그 어린 소녀가 여자이기 때문에 겪는 준엄하고 비통한 숙명의 광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그런 것쯤은 다른 더 비참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지 모른다. 여자의 슬픔에 넘치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내가 만일 여자가 된다면 제일 무서운 것이 아이 낳는 일일 것 같다. 조그만 주사 하나 맞고 썩은 이빨 하나 빼기도 무서운 노릇인데 사람 하나가 뱃속에 열 달이나 들어 앉았다가 좁은 길을 뚫고 나오니 그 얼마나 귀찮고 또 아픈 일일까. 나는 6년 전에 처가 막내 아이를 낳을 때 진통의 견딜 수 없는 사경 속에서 "여보 이제 나 정말 죽어요"를 연발하던 그 애절하고도 긴박한 얼굴을 잊어 버릴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없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정말 나쁜 놈이다. 생각하면 아이를 낳기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더구나 그 아이가 거꾸로 나온다든지 제왕절개라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성감이 더 발달되어 있다 한다. 그것은 아마 분만의 고통을 잊어 버리게 하려는 신의 섭리인지도 모른다. 저주된 쾌락이 아닐 수 없다.

여자가 되어서 다음으로 고통스러울 것은 보기 싫은 남편 섬기는 일일 것 같다. 남편이란 가장이요, 남자라는 우월감에서 잔심부름 일체를 아내에게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젊었을 때는 서로 이성이라는 아껴줌과 매력이라도 있었지만 늙어지면 그저 남편이라는 신경 없는

생물로 추락하고 마니 그런 놈이 주독에 걸린 것 같은 얼굴로 자리에 누어서 "여보 물 떠와" "약 사와" "신문 가져오고 발 좀 주물러라"고 소리지를 것이니 이것을 어쩔 것인가. 나는 "아휴 지긋지긋해" 하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아내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같이 느꼈다. 부엌에서 서서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운명을 통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自畵像〉 48.3×32.0cm, 1982년

여자가 되어서 셋째번으로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아침 저녁으로 부엌에 나가서 식사 마련하는 것일 것이다. 이때마다 아무도 없는 부엌으로 들어가 보면 빈 솥과 빈 그릇밖에 없으며, 도대체 거기서 그 속에서 어떻게 밥이 나오고 반찬이 챙겨지는지를 상상할 수 없다. 그런데 처는 그 부엌에서 뭔지 왔다갔다 하면서 밥상을 차려 오는 것이다. 참으로 위대하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여자가 되고 아내가 되어도 그런 신업(神業)은 못해낼 것 같다.

나는 처의 치마를 입고 빈 방에 혼자 서서 남자로 태어나고 남편으로 된 기쁨을 스스로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하며 처에 대하는 것처럼 거울 안의 나를 향하여 깊은 절을 하였다. 1967.3.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고고미술사학자이며 문인화가, 수필가이다.

아치문 앞에서 춤이라도

— 중남미 박물관

가을 하늘이 깊다. 이국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찾아 서울 근교로 떠난다. 사뿐히 고개를 내민 고양시 향교 추녀의 곡선을 따라 살짝 눈을 돌리면 붉은 성채가 우뚝 서있다. 경기도 테마 박물관 1호인 중남미문화원 병설 박물관이다.

1994년에 개관한 이곳은 5천 여 평의 대지에 박물관, 미술관, 조각공원이 들어서 있다. 중남미에서 30여 년간 외교관 생활을 한 이복형 대사와 그의 부인 홍갑표 이사장의 열정과 노력의 결실이다. 오랜 세월 동안 틈틈이 수집한 3천 여 점의 다양한 유물과 공예품, 미술품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스페인식 기와에 破璧으로 지어진 외관을 보며 입구로 들어서면 눈에 띄는 조형물이 하나 있다. 애마 로시난테를 타고 방랑의 기사가 되어 길을 나서는 돈키호테이다. 마치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미지에서의 모험을 즐기라고 암시해주는 듯하다.

하늘색 옷을 걸친 아름다운 청동 여인상, 넓은 치마폭을 펼치며 박물관 문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아치형 소나무 문의 문양도 영락없는 중남미풍이다. 잔잔한 현악기음이 깔린 중앙 홀은 시원하다. 트인 천정 위의 태양신이 탐색하듯 내려다본다. 스테인드글라스의 환상적인 빛이 스민 이곳은 중남미 지방의 광장 같은 느낌을 준다. 가끔 음악회 장소로 쓰이기도 한단다.

박물관은 석조 분수대를 중심으로 토기, 가구, 석기·목기, 가면, 민속공예 등의 전시실과 지하의 영상 세미나실로 꾸며져 있다. 고대의 마야문명으로부터 오늘의 중남미 문화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주로 멕시코-중미일대의 일부 토기가 수집 전시되고 있는 토기실에는 재규어 형상을 한 코스타리카의 세발용기와 파나마의 자그마한 동물모양 피리가

눈길을 끈다. '손가락을 빠는 토우'는 우리의 것과 비슷해 보인다. 15세기 아즈떼까의 '풍요의 신'은 한손에 인신 공희자의 머리를, 다른손에 창을 든 모습이 섬뜩하다. 무릎에 앉히고 팔에 주렁주렁 매달고 그것도 모자라 귀까지 아이들에게 내준 '다산의 여신'은 정말 재미있다. 머리엔 커다란 물고기를 얹고 풍만한 가슴으로 20여 명의 아이들을 감싸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그 옆의 전시는 스페인 점령 당시 중남미 상류사회의 거실을 재현한 곳이다. 중남미가 문화적 후진국일 것이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싶었다고 한다. 정면에 걸린 종교화들과 어우러지는 바로크 형식의 의자, 테이블, 조각상 등이 당시의 영화를 말해준다.

석기실로 들어서면, 3세기말 아즈텍족이 전설에 따라 메치노티뜰란(현 멕시코)에 首都를 정하는 모습이 담긴 대리석 탁자가 중앙에 있다. 곡물을 빻는데 사용하는 '메따떼', 마야의 피라밋 조각, 세미신 형상의 목기 등이 있다. 원주민들이 정신적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믿었던 '꿰짤꼬아뜰'은 깃털달린 뱀의 형상을 한 석조물이다.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200여 점의 가면은 인디오 카니발 의식에 쓴 것으로 재료도 종류도 다양하다. 가면을 쓰면 잠시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믿었다. 가면실 계단 옆에는 동양풍 도자기가, 반대편에는 다양한 색채의 멕시코 도자기가 있어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민속 공예실에서 눈에 띄는 것은 '태양의 돌'이다.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이 조각품은 우주관과 세계관을 표현한 아즈텍의 달력이다. 멕시코의 심볼 마크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곳의 또 다른 볼거리인 미술관은 1997년에 만들어 졌으며 1층과 지하에 전시실이 있다. 과테말라의 전통자수, 멕시코 민속공예인 위촐, 모라라고 불리는 자수 공예품의 강렬한 색채를 감상할 수 있다. 뮤지엄 숍에는 현지에서 가져온 다양한 살거리가 있다.

미술관을 나와 산책로로 내려가면 단풍나무 숲이 펼쳐진다. 멕시코에서 가져와 조립했다는 청동 벤치에 앉으면 새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라틴 음악이 점점 더 경쾌해진다. 조각 공원의 붉은색 아치문 앞에서는 춤이라도 춰야 할 것 같다. 이 문은 멕시코의 코요아칸 대문을 재현한 것이다. 관상수로 둘러싸인 야트막한 언덕인 이곳에는 12개국 중남미 작가들이 기증한 25점의 조각품이 전시되어 있다. 그 옆에 있는 예쁜 오솔길에는 聖物 조각품들이 지나는 이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2만 년 전 아시아의 몽골족이 옮겨가 마야, 잉카, 아즈텍 등의 문명을 꽃피웠다. 그래서 전시된 유물들을 보며 아시아적 정서와 친근감이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다. 하늘과 숲과 전시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중남미 박물관, 색다른 세계로의 멋진 모험이었다. 정

멧돼지 두 마리

돼지는 송아지, 망아지와 같이 그 새끼를 가리키는 말이다. 어미돼지는 원래 '돝'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죽은 말(死語)이 되어 지금은 모두 돼지라고 쓴다. 그 祖形인 멧돼지는 우제목의 멧돼지과에 속하는 동물로서 유라시아 멧돼지에서 파생하여 가축화된 포유동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석기시대의 상원 검은모루 유적, 만달산 동굴유적을 위시하여 황해도 평산군 해상리 유적, 덕천 승리산 유적 등에서 멧돼지의 화석이 발견되었다. 신석기시대의 웅기 서포항, 무산 범의구석, 통영 연대도, 회령 오동 등에서 가공한 멧돼지의 이빨이나 뼈가 나와 먹을거리 뿐만 아니라 치레걸이, 낚싯바늘 등으로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통영 욕지도의 신석기 유적에서는 멧돼지 모양의 토제품이 출토되어 '많은 멧돼지를 잡을 수 있도록' 비는 용도로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얼마 전 창녕 비봉리 신석기유적에서는 線刻된 멧돼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 토기가 출토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빗살무늬토기의 어깨 부분에 뾰족한 무늬새기개로 돼지의 몸통 윤곽을 먼저 그렸는데 등 부분은 둥글게, 배 부분은 수평에 가깝게 그어 반달 모양을 하고 있다. 등 부분에는 몸통의 윤곽선과 같은 굵기로 톱날모양의 돌기를 연속적으로 그었는데 아마도 돼지의 억센 털을 나타낸 듯하다. 뾰족한 주둥이 부분에도 이와 같은 굵은 선으로 길쭉한 두 점을 쿡 찍어 돼지의 찢어진 눈이나 코를 표현하였다. 몸통 내부에는 이들보다 더 얕은 선으로 비스듬한 문살무늬를 넣어 비교적 간명하게 처리하였고, 배 앞 쪽에는 역시 얕은 두 선으로 다리를 표시하였다. 앞다리로 보인다. 길이가 약간 다른 것은 측면에서 본 상태이기 때문이리라. 불행히도 돼지의 몸통 뒷부분은 토기편이 깨어져 나가고 없다. 얼핏 물고기와도 닮았고, 지붕을 이은 초가집 같기도 하다. 그러나 돌기상으로 표현된 등의 털이라든지, 코 혹은 눈이 표현된 뾰족한 주둥이, 원근감 있게 표현된 다리를 보면 돼지가 분명하다. 멧돼지이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인 셈인데, 그 주인공이 멧돼지이다.

창녕 비봉리 출토 멧돼지 그림

그 이후 청동기와 초기철기시대에는 멧돼지 뿐만 아니라 가축화된 집돼지의 뼈와 함께 칼의 손잡이나 제의에 사용된 증거를 보이는 자료와 함께 견갑골을 이용한 점 치는 뼈〔卜骨〕도 나오고 있다. 울산 반구대 바위그림에는 멧돼지의 그림이 사슴 다음으로 많아 당시인들의 좋은 사냥감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자웅이 교

미하는 것이나 사냥꾼과 대결하여 공격하는 자세 등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기도 하다.

통영 욕지도 출토
멧돼지 모양 토제품

고대 사서에도 돼지와 관련된 기록이 많다. 고구려 유리왕 때 도망가는 돼지를 뒤쫓다가 국내성에 이르러 산수가 깊고 험한 것을 보고 나라의 도읍을 옮겼다고 한다. 이는 돼지를 예시의 상징으로 묘사한 예이다. 산상왕은 아들이 없는데 달아나는 돼지를 쫓다가 어느 처녀의 도움으로 돼지를 붙잡고 그 처녀와 관계하여 아들을 낳았으며 그 아들의 이름을 교체(郊彘)라 하여 왕의 이름에 돼지가 들어가기도 한다. 부여에서는 벼슬 이름에도 돼지가 있으며, 말갈이나 옥저 등에서는 돼지가죽이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돼지기름을 발라 추위를 이긴다는 기록도 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돼지를 길상의 근원으로 인정하기도 하며, 주몽이나 동명의 얘기에 나오는 개국과 관계된 기록을 보면 제사나 희생의 대용물로 쓰기도 했다. 즉 돼지는 육질제공을 통한 식료와 모피는 물론이고 장신구, 제의의 희생물, 기원, 내세 등 생활사 전반에 많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사유적 특히 신석기시대의 패총(조개더미)에서는 엄청난 양의 멧돼지 뼈가 출토된다. 사슴 다음으로 많은 수로 추정된다. 선사인들의 먹을거리에서 멧돼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억세고 거친 멧돼지를 잡기 위하여 몰이사냥을 하였을 것이고, 때로는 함정을 팠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선사시대의 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발굴한 선사시대의 함정도 없다. 이 멧돼지들을 사냥하여 먹고, 가죽으로 깔개나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리한 돌화살촉을 벼르고, 단단하고 탄력이 좋은 나무를 깎아 활을 만들고, 함정을 파 그 안에 멧돼지에게는 치명적이었을 창을 거꾸로 박아 두었을 것이다. 활이나 함정을 먼저 찾고 멧돼지의 사냥이나 돼지사육의 방법을 복원하는 것이 순서인데 우리는 그 육탈된 뼈를 갖고 사냥방식이나 도구, 함정을 복원하여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몸은 둥글고 비대하며, 피부는 두껍고 네 다리가 짧으며 머리는 작으나 목이 굵다. 눈은 작고, 삐죽한 입 위에 두꺼운 육질 부분이 있으며 그곳에 콧구멍이 있고 땅을 파는데 적합하다. 다리에는 네 개의 발톱이 있고, 꼬리는 짧다. 체질이 강건하여 기후 · 풍토에 대한 적응력이 크고 早熟 · 多産하며 잡식성이므로 사육에 용이하다. 고기 맛이 좋아 여러 가지로 가공되고 내장 · 뼈 · 지방 등은 이용 가치가 크다. 분뇨는 거름으로 쓰인다.' 돼지에 대한 사전적 해설이다.

최근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멧돼지를 두고 환경단체와 행정기관들이 벌이고 있는 실랑이를 보면서 고고유물과 사서에 보이는 멧돼지를 한 번 생각하여 보았다. 오늘 밤에 우리 모두 돼지꿈을 꾸었으면 좋겠다.(雲門)

鳴沙山 위를 나는 莫高窟의 飛天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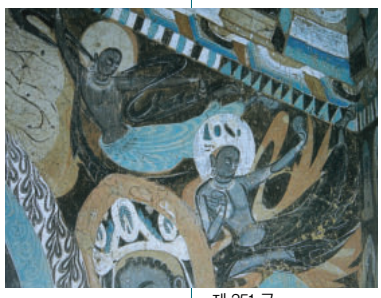
유 서 산 | 회 원

莫高窟은 敦煌 남쪽 오아시스 너머의 鳴沙山 동쪽 山麓 1.6km 가량에 造營된 600 여 개의 석굴과 龕室을 지칭한다. 십 수세기에 걸친 끈질긴 신앙적 집념이 만들어낸 특출한 예술품의 寶庫, 그 앞에 서면 망연히 할 말을 잊게 된다.

두 번의 이곳 답사에서 가장 강한 인상은 단연 飛天像들이었다. '돈황의 벽화에 비천이 없는 곳은 없다.'[敦煌壁畵無處不飛天]할 만치 비천과 伎樂天이 혼자서, 혹은 둘이서, 때로는 백이 넘게 등장하기도 한다. 자유자재한 몸놀림, 半裸의 강인한 체력과 색채, 天衣의 펄럭이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먼 옛날에도 긴 시간 천정에 매달려 심혈을 기울인 이유는 신앙심 때문이었지만, 디지털이 지배하는 예측불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신비로운 敬畏感을 금할 길 없다

막고굴이 조영되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초기에는 그 지역적 조건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의 호전적 기풍에 힌두문화의 영향을 입은 이슬람문화가 별 거부반응 없이 유입되었다. 인더스강 유역의 문명이 북중국보다 선진문화였으니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은 것이다. 거기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인도의 形而上的 사상과 地中海文明的 요소까지 가미되어 석굴에 반영되었다. 그 하나가 여기 표출되고 있는 尙武精神이다. 당당한 체구에 부릅뜬 눈이며, 무술의 기본동작 같은 몸의 자세가 단연 위압적이다. 중국인들의 시각으로는 흉노족 같은 오랑캐 문화인 것이다. 간혹 보이는 유라시아 대륙의 스키타이형 繪畵나 동물 도안들은 그 발원이 지중해임을 말해준다.

제 272 굴


제 251 굴

누가 무어라 해도 막고비천의 특징은 그 색과 線에 있다. 초기 비천들은[272호, 275호] 머리에 원광을 두르고 몸이 짧으며, 庫車의 비천들을 닮아서 몸놀림이 빠르게 보인다. 北魏시대에 오면 主佛의 머리 위에 있던 비천이 벽면으로 자리를 넓힌다. 얼굴이 풍만하고 코가 크며 입이 작고 균형 잡힌 몸매가 된다. 옷자락을 나부끼며 옆으로 나르는 모습이 학과 같고, 꽃잎이 떨어져 내리는 듯 아름답다.[226호 북벽 설법도] 隋代에는 날으는 형상이 다양해진다. 오르거나 옆으로 날기도 하고, 바람을 타거나 거스르기도 한다. 허리가 날렵하고 뺨이 둥글어 표정이 밝으며 보관을 쓰고 목에는 瓔珞을 둘렀다. 그리고 꽃을 뿌리거나 공후나 피리 같은 악기를 들었다.

이 비천들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서양의 인상파나 야수파 계열의 작품 앞에 서 있는 듯 하다. 272호굴의 비천은 즐거움에 넘치는 몸동작을 단순하게 처리한 마티스의 '춤'과 겹쳐진다. 루오의 '늙은 왕'에서 본 투박한 선과 강열한 색상도 여기 비천상들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 꾸불거리는 생동감 넘치는 르느아르의 붓터치, 세잔느의 원색에서 풍기는 규범을 逸脫한 진동 에너지가 막고굴의 공기결을 통해 느껴진다. 非寫實的인 그림이 사실적인 그림보다 더 감동을 준다. '아름다움을 포기한 革新的인 것에 진실이 깃든다'는 루오의 말이 실감난다.

唐代 이후에는 많은 經變圖 안에 설법하는 상공을 채색 구름 속에 날며 꽃을 뿌리는 雙飛天이 많아진다. 그리고 宋代 이후에는 그저 특징 없이 전대의 것을 답보하는 상태가 된다.

251호굴의 說法圖에 그려진 쌍비천은 반라의 상체에 긴 비단 띠가 S자형으로 구부러져 끝이 갈라지고 넓어져 힘차게 보인다. 흰 바탕에 물결무늬가 대칭적으로 그려진 치맛자락을

제 290 굴

나부끼며 춤추고 날아오르는 자세가 유연하여 마치 두 마리 제비가 비상하는 듯, 바람에 나부끼는 옷자락 소리가 음악이다.

320호굴의 南壁에 있는 阿彌陀經變圖의 쌍비천은 둘씩 대칭으로 마주보며 날아오르는데, 앞의 둘이 꽃을 뿌리며 뒤를 돌아보고 손짓하면, 뒤에서는 활짝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다. 아미타불의 극락을 歡喜로 뒤덮는 脫俗의 몸짓이다. 그 우아한 색과 線, 힘찬 붓놀림, 티 없는 웃음들은 가히 神品임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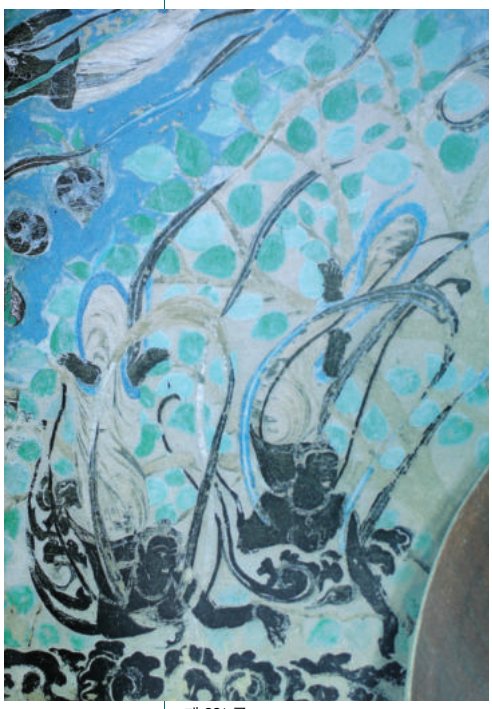
321호굴의 쌍비천은 下降의 속도로 흰 치마가 둥글게 말려 몸을 감고, 몸은 완전히 거꾸로 날아 비단 띠가 세로로 나풀거리며 머리카락이 치날린다. 그 부드러운 몸짓에 웃음 띤 눈과 긴 눈썹, 다문 듯 만듯한 윤기 흐르는 입술, 보관을 쓰고 영락을 두른 시원한 목, 그리고 팔지를 낀 날렵한 손목이 더없이 경쾌하다.

쌍비천은 天龍八部 중에서 인도 신화의 歌神으로 출중한 외모의 건달바(乾達婆;일명 香音神)를 말하고, 하나는 樂神으로 건달바의 아내인 긴나라(緊那羅)의 변신이라 한다. 이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노래와 음악이 따르고 춤이 있게 마련이어서 불국이 찬미와 축복으로 가득해진다. 원래 건달바는 향기를 뿌리고 부처께 헌화하며, 보물을 바치고 꽃잎을 날리며 天宮으로 오르고, 긴나라는 佛殿에 奏樂하고 노래하고 춤추나 구름 속은 날 수 없었다. 그러다가 후대에 오면 이들이 혼합되어 남녀와 하는 일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비천이 된다.

또 이네들이 비천과 분리해서 기악천이라 따로 부르는 것도 우리는 합쳐 비천이라 부르며 혹 奏樂天이라고 분리해서 부르기도 한다. 일설에는 불교설화에 나오는 가릉빈가라는 새의 화신이라 한다. 불계와 천계에서 歌舞, 散花의 신으로 머리에는 神彩가 있고 飄逸하고 優美하여 그 자태와 음악에 醉한다고 했다. 그래서 불국의 정토에는 항상 비천이 등장한다.

제 320 굴

우리도 초기의 벽화, 즉 고구려 고분의 그림들에서는 이곳과 유사한 것이 많다. 장전1호 고분의 비천상, 특히 안악2호 고분의 玄室 東壁에 그려진 비천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붉고 푸른 연꽃을 손에 들고, 반라의 상반신을 쳐들었다. 우아하고 풍만한 몸에 영락을 걸치고 바람에 천의와 비단 띠를 날리며 옆으로 날고 있는 모습이 이곳의 비천들과 아주 비슷하다. 그 후 신라나 고려의 梵鐘으로 오면 여기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飛翔의 형태가 출현한다. 성덕대왕 신종의 비천을 보면 확연히 벽화의 것들과 구분된다. 화관과 천의와 비단 띠며 영락은 비슷해도 비천의 자세는 아주 다르다. 막고의 비천처럼 遊泳하듯 나는 것이 아니고, 날렵한 몸매로 蓮華座에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연꽃을 받쳐 들며 우러르고 미소 지으며 내려온다. 그 자세와 눈길에 希願과 숭배의 念이 가득하다. 뒤쪽으로는 寶相華의 줄기가 뻗어 구름처럼 떠받들어 한층 더 신비롭다.


제 321 굴

만약 이들 窟寺에 비천들이 없었다면…… 그런 상황은 생각하기도 싫고 오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鳴沙山 砂丘의 날카로운 등성이가 굴곡진 아래쪽으로 버들잎 같은 月牙泉이 그림같이 떠있다. 달 밝은 밤이면 이 굴 속의 비천들이 깎은 듯 누워 있는 명사산 능선을 훨훨 넘어 월아천 위를 날며 꽃을 뿌리고 기악천들이 天樂을 연주할 것이다. 그때 홀연히 정자에 앉아 茶香에 젖는 꿈같은 장면을 그려 본다.

제 158 굴

세월과 역사와 인간이 연출하는 이 자욱들이 언제까지 이어지며 明滅을 반복할 것인지. 한 조그만 존재인 나를 돌아보며 소름끼치는 숙연함을 떨쳐내는데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왜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면서 그것을 부정해야 하는지. 석굴을 보고, 낙타를 타고, 낙조를 바라보며 느끼는 이 간절함이 어떤 의미가 있고, 못견디게 원하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가를 생각하는 것도 다 부질없는 순간을 스쳐가는 일일 뿐이다. 알타이의 雪山과 고비사막을 끝없이 달리는 차 안에서의 이런 사념들도 그 비천들만 생각하면 거품처럼 사라진다.

아 ! 긴 예술과 역사 위에 선 莫高의 飛天들이여

답사,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 영 남 | 회 원

생활이 안정되고 문화적 욕구가 많아지면서 역사나 예술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나 해외의 웬만한 명승지라면 거의 다녀왔다. 그러나 한꺼번에 여러 지역을 촉박하게 다니다 보면 여행지의 참 맛을 느낄 겨를이 없다. 오죽하면 '찍기 관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정치인들이 유명인사와 악수한 사진을 걸어놓고 세력을 과시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한번의 여행은 사실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이 든다. 그런데 기껏 여행지의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 노릇이나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른바 테마 여행이라는 것이 그나마 좀더 전문적이다. 사전에 유인물을 나눠주고 여행지에서 장황한 설명을 듣는다. 잊지 않으려고 열심히 기록도 한다. 현장에서는 뿌듯하고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은 착각이 든다. 그것도 몇 번 반복되다 보면 그게 그것 같은 혼란이 온다. 참 좋았다는 느낌 외 딱히 설명할 말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서도 여기저기 답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심리는? 일종의 답사증후에 걸린 것이다. 흔히 '나무와 숲'의 비유를 들어 큰 흐름을 보라고 충고한다. 너무 큰 줄기만 추리다 보면 자칫 여행의 묘미인 재미를 놓칠 수 있다. 나무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면서 숲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을 없을까?

첫째는 관심 있는 분야의 주제를 정하는 것이다. 이번 답사에서 무엇을 보고 올 것인가에 대한 탐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답사지에 따라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두 세 가지를 선택한다. 사람들은 흔히 博學多識을 부러워한다. 병원에도 一般醫와 專門醫가 있고 名醫라는 호칭도 어느 특정분야에서만 가능하지 않은가. 분야마다 깊은 경지에 이르기는 쉽지 않은 욕심일 뿐이다. 주제의 범위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것보다는 구체적인 분야여야 한다. 그래야 흥미도 생기고 알찬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두루뭉수리에 수박 겉핥기식 관광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령 경주 남산을 답사 한다고 해보자. 막연히 불상을 보겠다는 것보다는 이것을 시대별, 재질별,

용도별로 나누어 보면 훨씬 흥미롭다. 분류를 하려면 우선 하나하나의 특징을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 도우미의 해설을 주입식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의 분석이 필요하다. 귀는 해설을 듣고 눈은 관찰하느라 부지런히 움직인다. 그러다보면 머릿속도 깔끔히 정리되고 하나하나의 불상이 정말 예사롭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흥미가 倍加 되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다음으로 해야 할일은 답사에 대한 나만의 기록이다. 현장에서 안내자의 해설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경험에 비추어보면 노동에 비해 큰 효용가치는 없다. 돌아서면 잊어버릴 그야말로 필기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나만의 관찰을 기록해 두라는 것이다. 비교 분석한 내용, 특이점, 현장에서 느낀 소감 등, 되도록이면 답사당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나이에 따른 기억의 한계는 누구나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날의 빛깔과 향기가 녹아있는 현장만큼 생생한 스케치에 적합한 장소가 어디 또 있겠는가.

멋진 기행문이나 답사기를 쓰라는 것이 아니다. 너무 잘 쓰려고 하면 긴장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부담감 때문에 글쓰기를 망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누구에게 보이려는 것도 아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뇌리를 스치는 단어나 구절이면 어떤가. 추억의 寶庫에 저장할 내 기억의 片鱗일 뿐이다. 나만 알아 볼 수 있는 암호문이라면 더 재미있을 것 같다. 어쩌다 정말 기행문을 써야 할 일이 생긴다면 노트를 다시 들추어 보라. 단어 하나에서도 그때의 감상이 새록새록 살아날 것이다.

역사적인 유물을 기리고 감상하는 것은 溫故知新의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마지막 당부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기 보다는 자신이 몰입하여 즐기라는 것이다. 기와 한쪽의 표정, 빈 절터 한켠에서 스치는 감정이 애틋하고 소중하다. 차마 떠나기 싫어 다시 되돌아보는 애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눈을 감아도 유물의 선과 형이 살아나고, 만든 이의 혼이 내 마음에 닿을 것이다. 저무는 저녁녘 해지는 풍경을 바라보다가 신라의 절터로 순간 이동 한다는 건 얼마나 황홀한 경험인가. 그 분위기에 흠뻑 젖어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몰입이 우리 삶의 지평을 넓고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그림 한 장을 보고 수천 마디의 말을 한들 온전히 다 이해한 것일까? 하물며 역사의 숨결이 스민 유물과 유적은 더욱 간단하지 않다. 보고 싶은 것만 선별해서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올바르게 즐기는 방법이다. 간단한 기록은 남기되 욕심은 금물이다. 무엇보다 선행해야 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이다. 그리고 답사를 계획하는 쪽에서도 날로 변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잘 대처해야 한다. 답사자의 수준에 맞는 세분된 주제에 따라 전문 해설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부의 왕도는 예습, 복습이지만 수준별 반 편성도 간과해선 안된다. 진정한 만남의 길은 즐거운 몰입에서 시작되므로.

함께 하는 신나는 피크닉

한 숙 현 | 회 원

"우리 내년에는 꼭 박물관대학에 입학하자!"

시어른과 어린 자녀가 있는 동생에게 1993년 겨울에 제안했다. 사실 그 전에도 한 번 시도했다가 못 한 적이 있었다. 굳이 이 강좌를 들으려 한 것은 동생을 집에서 끌어내서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서였다. 공부하겠다는 욕심은 다음 차례였다. 제법 나이 차이가 있는 동생이라 어리게 생각되었는데 세월이 지나며 친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궁금하지만 만나지 못하고 지내던 차에 더 없이 좋은 기회이자 핑계였다.

매주 화요일이면 호기심을 채워가며 수업을 들었다. 동생은 집안 어른들 때문에, 나는 직장일로 같이 식사 한 끼 할 여유도 없었지만, 짧은 휴식시간도 즐겁기만 했다. 커피를 마시며 한 주간의 뉴스를 풀어 놓곤 했다. 바쁘게 수업에 오면서도 동생은 늘 무언가를 챙겨 왔다. 음식이며 선물을 갖다 주었다. 예전과는 수업의 내용이나 방법도 많이 바뀌어서 매 시간이 신선하고 정말 재미 있었다. 학창시절에 이런 수업을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동생도 마찬가지인 듯 했다.

박물관의 답사는 함께 가는 신나는 피크닉이었다. 긴 시간 같이 버스를 타고 가며 실컷 수다를 떨었다. 동생이 준비해 온 도시락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또 얼마나 행복했던지. 어린시절에는 늘 보살펴 주어야 했는데 어느덧 언니를 챙기는 동생이 대견스럽기만 했다. 박물관 특설강좌에 등록한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했다.

그 해 여름에 일본과 대만으로 답사여행이 잡혔다. 우리는 무조건 신청했는데, 박물관 회원들은 정말 부지런했다. 이미 인원이 다 찼단다. 우리만 정보에 늦은 건지 아니면 그들만의 특별 레이다망이 있는 건지 알 길이 없다. 겨우 막차를 탔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는 얼마나 기뻤든지. 다른 걱정은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그러나 혼

자였다면 뒤늦게 따라나설 용기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자매만큼 속속들이 알고 있는 룸메이트가 어디 있겠는가?

둘이 하는 첫 해외 단체 나들이여서 무척 기대에 부풀었다. 교토, 후쿠오카, 나라의 곳곳이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다. 특히 교토의 무더위를 견디는데 우리의 자매애가 한몫을 톡톡히 했다. 가뭄까지 극심하여 교토는 인근 도시에서 물을 사다 쓰고 있었다. 컵 씻는 물도 아껴야 했다. 그 더위에 룸메이트가 서로 허물없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다음 여행은 그리도 가보고 싶던 남미 페루 마추피추였다. 이미 여행에 발동은 걸렸으니 망설일 것이 없었다. 나와 함께여서 동생도 수월하게 남편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여행은 1월 중순이었는데 나는 마침 집 이사를 하자마자 출발하게 되었다. 짐을 풀지도 못한 채 여행 가방을 꾸려야 했다. 여행 오리엔테이션도 참석 못하고 여권도 동생이 갖다 냈다. 직장을 오래 비워야 하니 미리 해야 할 일은 또 얼마나 많든지, 늦은 밤에 퇴근하여 눈도 못 붙이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L.A.에서 1박하고 페루 리마에 도착하여 짐도 안 풀고 곤하게 푹 잤다. 다음 날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 구경나갈 채비를 했다.

"언니 그걸 입고 나가려고? 더울 텐데, 뭐 좀 얇은 옷 없어?"

아차! 싶었다. 출발 당시 서울은 차가운 겨울이었다. 그나마 얇은 옷으로 준비 했는데 페루는 아주 여름 날씨였다. 입을 수 있는 옷은 얇은 셔츠와 청바지 한 벌 뿐이었다. 이제 곧 거지가 될 형편이었다. 우리 자매는 키가 달라 빌리기도 여의치 않았다. 아쉬운대로 동생 옷을 한두 번 빌려 입다가 할 수 없이 기념품으로 짧은 소매 셔츠를 샀다. 그래도 동생하고 함께 간 여행이니 덜 창피하고 위안이 되었지 낯선 사람과 룸메이트였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처량했을지.

둘이 다녀서 좋기만 했을까? 사실 서로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다. 대리 출석 문제이다. 내가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해도 부탁은 엄두도 내지 말라고 동생은 엄포를 놓았다. 어느 날은 점심시간에 달려가서 서명만 하고 왔다. 직장이 박물관과 가까운 곳에 있어 천만다행이었다. 그래도 수업 빠진 날의 노트는 동생 신세를 지는 수밖에 없었다. 깐깐한 동생은 들통나지 않게 베끼라고 토를 달았다. 그대로 쓴다고 무슨 일이 있으랴만 나도 고지식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우리 자매는 그 점에서도 닮은꼴이다. 누군가 내게 아쉬운 소리를 했다면 똑같이 일언지하에 거절했을 것이다. 그 고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덕분에 나는 개근상까지 탈 수 있었다.

지금 이 글을 쓰며 불가사의한 쿠스코의 돌담, 머리 땋고 짐 지고 다니던 잉카 여인, 우리나라 시골같이 낯익은 꽃들이 정겹게 피어있던 아름답고 조용하던 우르밤바, 신비한 마추피추의 폐허, 그 곳 어느 소박한 건물의 처마 아래쪽 마루에서 맞은 기분 좋은 산들 바람, '안녕'을 외치며 버스를 따라 언덕길을 뛰어 내려오던 소년,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바라보던 라마의 슬프고도 무심한 눈이 한꺼번에 뒤엉켜 새삼 나의 그리움을 불러낸다. 동생과 함께한 시간이었기에 더 애틋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다. 멕시코의 피라미드와 석조물, 그리고 시원한 카리브 해안도 눈에 선하게 그립다.

"아우야, 다음 박물관 해외 답사는 어디로 같이 갈까?"

소리까지 아름다운 다듬잇돌

이웃집 다듬이 소리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잦아가네
무던히 졸리기도 하건만
닭이 울어도 그대로 그치지 않네

–양주동의 詩–

어린 시절 낮잠에서 깨면 홀로 남겨진 듯 서러워 목이 메었다. 그 때 대청에서 들려오던 귀에 익은 다듬이 소리에 나는 눈물을 훔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곤 했다. 낭랑한 그 소리는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 다듬잇돌의 모습은 주변에서 자취를 감춰 버렸다. 다행히 진열장 앞에서나마 鄕愁에 젖어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새로 단장된 국립중앙박물관이다. 박영숙 기증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본다.

이곳에 들어서면 한 면 가득 다양한 색과 모양의 다듬잇돌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그 옆면에 돌화로와 인두, 다리미, 가위들이 마치 방금 일을 마친 듯 정겨워 보인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옛 여인들의 일터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라 할까? 한결같은 정성으로 가족의 옷가지를 다듬던 어머니의 부지런하고 소박한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다.

朴永淑 치과원장과 許東華 한국자수박물관장 부부가 30여 년간 수집한 700여 점에 이르는 규방용품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것은 10년 전의 일이다. 그간 수장고에서 잠자고 있던 이 유물들이 용산으로 옮겨와서는 따로 방을 마련해 관람객들을 만나게 된다. 500여 점의 다듬잇돌을 비롯하여, 돌화로, 인두, 가위, 자개 반짇그릇, 다리미 등의 소품류와 민화병풍, 불화, 사인교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들을 수집하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은 어쩌면 당연한 과정이었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의 오해도 있었고, 원하는 수집품을 얻기 위해 나섰다가 낭패를 당한 경험도 있다. 그러나 부부의 열정 덕분에 다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르는 이 유물들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기증하고, 10년이 지나서야 다시 이들을 대하는 느낌은 어떤 것일까?

"그때 일이 떠오르네요. 오래 생각한 끝에 기증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막상 전날 밤이 되니 잠이 오지 않더라구요. 몇 점만이라도 간직하고 싶은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고르다 보니 20~30점이나 되어, 이걸 놓고 또 다시 고민을 했지요. 남들은 모르겠지만 몇 점을 뺀다면 제 마음이 개운치 않을 것 같았죠. 그래서 자수박물관에 필요한 수예품을 제외하고 남김없이 다 보냈습니다. 그 후 다른 기증 유물들은 특별전 등을 통해서 관람객들과 만나기도 했는데 제 수집품은 한 번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게 아쉬웠습니다. 다행히 새 박물관에서는 따로 방까지 만들어 주셔서 기쁘고 반가운 마음 말로 다 못 하겠어요. 또 다시 잠이 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사람들의 관심 밖이었던 다듬잇돌의 유물적 가치를 주목하게 됐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늬새김, 모양, 재질, 비례, 색채 등의 아름다움과 다듬이 소리의 매력,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희귀성 때문이었다고 박 원장은 말한다. 실제로 다듬이질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모두 행해졌다고 하나 오늘날까지 생활 속에 남아있는 곳은 우리나라 뿐이다.

다듬잇돌은 옷감의 구김을 방망이로 두드려 펴는 도구로 다리미질을 대신한다. 재료는 주로 화강석, 烏石, 靑石, 차돌 등이며 명주, 모시와 같은 얇은 천을 다듬기 위한 용도로 나무로 만든 것도 있다. 옆면에는 子孫昌盛, 福과 長壽, 富貴榮華 등의 염원을 담은 길상 무늬나 추상적인 형상을 새겨 넣기도 했다. 그 외에 궁중에서 쓰던 것, 비석을 잘라 만든 것, 동물의 형상을 새긴 것, 우주관을 나타낸 글귀가 쓰여 있는 것 등 희귀한 것도 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다듬이 소리, 글 읽는 소리, 갓난아이 우는 소리를 세 가지 듣기 좋은 소리, 즉 三喜聲이라 했다. 이처럼 반가운 다듬이 소리는 타악기라는 측면에서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한다. 박영숙 기증실에서는 MP3를 통해서 그 장단을 직접 들어 볼 수 있다. 사라져가던 소중한 우리의 소리 하나를 붙들어 놓은 것이다.

박 원장의 소망은 오직 하나다. 박물관을 찾는 이들이 소중한 우리 규방 유물들을 자주 접하고, 향수어린 別個의 아름다움으로 가슴 속에 오래 기억해 주는 것이다.

새 박물관의 문이 활짝 열리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벌써 귓가에는 그리운 어머니의 낭랑한 다듬이 소리가 맴돈다.

또드락 똑딱 또드락 똑딱……. 衍

다른 사람들의 생각 엿보기

누가 이 책자에 관심이나 가지고 있을까? 그간 〈박물관 사람들〉을 편집하며 가졌던 의문이다. 회지를 받아든 회원은 얄팍한 종이 묶음으로 보겠지만, 책이 나오기까지 편집회원들이 쏟은 시간과 노력은 적지 않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책을 읽는 것일까? 어떤 제목이 가장 시선을 끌고, 냉대를 받았을까? 또한 책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어떻게 비치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지난 6월말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보고서이다.

설문에 응한 대부분(95%)의 회원은 책을 읽는다고 답했다. 독자들은 주로 책자를 넘기다가 눈에 들어오는 제목을 읽었다(61%). 편집회원의 우려와는 달리, 처음부터 꼼꼼히 읽는 고마운 독자도 4분의 1이나 되었다.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자신이 참여한 여행지의 기행문, 지인의 글이 실리면 읽는다.'가 순서대로 뒤를 이었다.

편집회원들이 책을 기획하면서 가장 정성을 쏟는 분야는 특집 기사이다. 어떤 제목이 독자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것일까? 연적, 새 국립중앙박물관, 통일신라 와당, 오리모양토기 순으로 집계되었다. 새 박물관 소개 외에는 모두 陶土器類 소재였다. 주제는 대체로 흥미 있으나 내용은 수준의 편차가 있다고 응답했다. 제목별 수준 편차에 대한 설문은 없어, 독자의 기대에 못 미친 제목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지식을 넓혀준다'와 '아는 것을 정리해 주는 수준' 등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읽을 가치를 못 느낀다'는 독자는 한명도 없었다.

특집은 소재를 선택하고 자료 수집, 문헌 탐독까지 공동 작업을 거친다. 그중 소재선정이 제일 큰 고심거리이다. 회원들의 흥미를 집중시킬 소재로 계절 감각이 있으면서 시의적절한 것은 없을까? 특집 중 〈內簡〉과 〈포류수금문〉의 경우, 학계의 연구 자료가 적어서 애를 먹었다. 이런 설문 조사는 회지의 현주소 파악도 중요하지만 회원의 참여 유도도 한 몫을 한다.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한 설문에서 의견이 많지 않아 소

극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세계의 박물관, 고건축, 불교미술, 서예, 실크로드 등이 우위를 차지했고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고구려사, 중앙아시아문화, 올바른 역사관 등도 제시되었다. 응답자의 74%가 여자이어서 服飾, 규방공예, 전근대 사회의 여성인권 같은 주문도 있었다. 앞으로 적극 참고할 예정이다.

특집 외에 주로 읽는 것은 무엇일까? 편집회원이 가장 궁금해 했던 항목이다. '다시 읽는 선비들의 우리문화 사랑'이 제일 많았다. 특히 50, 60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매회 도서관을 뒤지고 고문서를 번역한 보람이 있었다. 20, 30대는 '전시실 산책'을 선호했다. 사실 이 코너도 특집 못지않게 심혈을 기울였다. 작품을 선정하는 일이 제일 어렵다. 국공립 박물관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립 박물관의 특별전을 대상으로 한다. 주로 저명인사에게 원고를 청탁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편집회원이 직접 나선다. 감상은 같이 할 수 있어도 원고쓰기는 한 사람의 몫이다. 자신의 감식안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글쓰기라 편집회원 모두 맡기를 두려워하는 꼭지이다. '답사를 다녀와서'와 '박물관 탐방' '유물사랑'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고르게 읽히고 있었다.

예상은 빗나가야 제 맛인데 '학술 발표 요지'가 역시 독자의 관심을 벗어나 있었다. 흥미있는 내용이 아닌데다 너무 전문적이고 한자도 많아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했다. 고심 끝에 이 난을 빼기로 했다. 소수이긴 하지만 애독자도 있어서 중요한 학술 발표의 경우 다시 실을 예정이다. '권두시'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독자는 무심한 눈길로 스쳤겠지만 특집과의 연관성 뿐 아니라 계절 감각이 있는 시를 찾느라 편집회원은 수없이 시집을 뒤적여야 했다. 권두시가 아닌가? 이번 호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코너이다. 전채요리처럼 슬쩍 맛을 봐 주었으면 좋겠다.

책의 디자인이나 편집에 대한 설문에서는 현 체제에 별 불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자 표기가 많아 우려했는데 대부분 적절한 혼용으로 오히려 이해를 높인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대졸 이상의 50, 60대인 점도 그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독음을 병기해 달라는 의견도 30%나 되었다. 점차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것이다. 글자가 작다거나 책의 사이즈가 휴대에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현 체제를 고수할 예정이다. 다만 원고의 분량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문의 글자 크기를 조절한 적이 간혹 있었는데 예리한 눈으로 이를 지적한 분들이 있어 놀라웠다. 애정과 열의가 고마웠다. 글씨체는 변화를 주되 크기는 일정하게 통일할 것이다.

책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특집 주제의 다양화'와 '내용의 심화'였다. 겉모양이 아니라 내실 있는 책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다. 가장 어려운 과제이고 늘 고민되는 문제이다. 소수지만 젊은 회원의 구미도 반영되어야 한다. 발 빠르게 움직이며 예리한 눈으로 관찰해야겠다. 편집실의 귀는 언제나 열려 있다. 회원들의 의견 제시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적극적인 회원의 참여 유도'에 응답하신 많은 분들 더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 솔직한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더 좋은 회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河

한국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鍾仁 1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회장을 거쳐 2002년 11월 俞相玉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兪相玉
副會長 | 李京姬 · 許東華
理　事 | 李健茂 · 金容元 · 金宗圭 · 朴魯壽
朴容允 · 徐載亮 · 李福衡 · 李仁洙
全晟雨 · 鄭良謨 · 池健吉 · 千昞玉
千信一
監　事 | 權泰宣 · 李起雄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 · 평생 · 영구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기부회원은 천마 · 금관 · 은관 · 청자 · 백자회원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 · 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의 회비는 천마회원 일억 원 이상, 금관회원 오천만 원, 은관회원 삼천만 원, 청자회원 일천만 원, 백자회원 오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 은관회원
兪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 청자회원
趙炳舜　성암고서박물관장
金榮秀　변호사
玄明官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愼昌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金永斌　김&장 법률사무소
徐載亮　아름지기 상임이사
田永采　사) 한길봉사회 이사장
胡鍾一　호성흥업회장
申硯均　아름지기 이사장
李雲卿　남양유업 전문위원
韓奉珠
金英惠　제일화재 이사장
千信一　세중옛돌박물관장
李美淑　삼표산업
鄭在昊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李明姬
朴容允　한국박물관회 이사
朴仙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李起雄　열화당 대표

≫ 백자회원
李京姬　수필가
李仁洙　수원대학교 이사장

한국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배우고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통문화 보급을

지원사업

박물관 전시, 연구 · 교육 · 문화사업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다.

■ **전시지원** | 전시 공동개최와 특별전 준비와 행사 등을 지원한다.

■ **연구지원** | 발굴조사, 학술연구 조성비, 도서구입 등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학술연구 활성화를 돕는다.

■ **교육지원** | 전통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박물관신문을 지원한다.

■ **유물기증** |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물 확대와 기증문화운동의 사회적 확대를 위해 유물을 구입하여 기증한다. 천전리암각화모형, 청자벼루, 18세기 노안도족자, 화조8폭병풍, 독일제 유물진열장과 국외로 반출된 조선시대 화각함, 베트남 청화백자, 로버트 세이어의 일본제국과 한국왕국의 지도, 청주군지도, 위창 오세창 와전문 서예전각 10폭 병풍 등을 구입 기증했다.

자원봉사

3년 이상 박물관교육을 받은 회원 중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은 후 활동할 수 있다.

■ **전시실 자원봉사**
특별전시 안내 | 특별전 기간 중 국내외 일반인을 위한 전시유물 안내
청소년 학습지도 | 중 · 고교생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전시실 현장학습
상설전시 안내 | 박물관 관람객을 위한 전시유물 안내

■ **유물정리 자원봉사**
발굴조사 유물정리 | 발굴유물의 세척, 유물등록 · 실측, 토기편 맞춤, 복원작업
자료정리 | 사진 · 도면 등의 정리
발굴현장조사 | 발굴현장에서 세척, 약실측, 정리, 분류 등을 보조

■ **회지발간 자원봉사**
기획 편집 · 원고 수집 정리 · 디자인 작업 · 회원 및 관련기관에 배포

■ **교육진행 자원봉사**
박물관 특설강좌 · 연구강좌 교육진행 보조

원고를 받습니다

회지(전시실 산책 · 답사를 다녀와서 · 자원봉사를 하면서 등)에 글을 싣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200자 원고지 12매 정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립니다.

한국박물관회의 사무실 전화번호와 홈페이지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전　　화 : 2077-9790~3
홈페이지 : www.mumes.org

위한 사회교육, 자원봉사활동, 공익적인 문화사업, 박물관 지원사업 등을 합니다.

문화사업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출판과 문화상품으로 제작하여 국내외에 홍보한다.

■ **출판** |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인쇄물과 CD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한국고고학미술사요해, 한국미술오천년 영문판, 동원수집문화재 1집, 동원수집문화재 2집, 동원수집문화재 3집, 동원수집문화재 4집, 고려청자명품 도록, 박물관신문 축쇄판 2집, 실크로드미술 특별전도록, 한국전통문화, 즐거운 박물관여행, 한국전통문양 1집·CD,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도록,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 유리원판도록, 한국전통문양 2집·CD, 한국전통문양 3집, 조선시대 풍속화 특별전도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본근대미술 특별전도록, 영혼의 여정 특별전도록, 서역미술 특별전도록, 한국전통매듭 특별전도록 등을 발간했다.

■ **문화상품** | 우리 문화의 특색과 아름다움을 살린 상품을 개발·보급하여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관람객 편의** | 박물관 관람객에게 편의시설과 전시실 홍보자료를 지원한다.

사회교육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한다.

■ **특설강좌** |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효시로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일반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며,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해 1977년 개설, 그동안 만여 명을 배출했다. 매년 화·목요반 각 200명씩 400여 명을 모집해 한국사·인류학·고고학·미술사 등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50여 회의 강좌와 전시실 교육, 국내외 고적답사 등 150여 시간에 걸쳐 진행한다.

■ **연구강좌** | 특설강좌를 수료한 후 지속적으로 공부하도록 개설했고, 1997년 특설강좌 기수별 스터디그룹을 통합·재편해 운영한다. 한국사·동양사·고고인류·사상사·불교미술사·미술사 등 6개 반으로 나누어 하나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각 반은 200여 명으로 매년 1,200여 명이 수강한다.

■ **고적답사** | 1975년부터 시작해 300여 회를 넘었다. 매월 박물관·사찰·사지·발굴현장 등 국내의 주요유적 답사와 1988년부터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해외답사를 운영한다.

■ **학술강연회·발표회** | 회원과 일반인에게 매년 3~5회 정도 국내외 전문학자를 초빙하여 박물관 특별전과 관련된 주제, 발굴보고, 학계발표 연구내용을 강의한다.

이 책을 만들면서

부드러운 솔바람이
나를 감싸안고,
고개 들어보니
쪽빛 하늘은 내게로 들어옵니다. (愛)

어느것 하나 쉬운 건 없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음을 배우는 일,
끝이 없는 숙제이기도 하다. (河)

다듬이 소리 따라서 여기저기 헤매느라
여름 지난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고개 들어보니 하늘은 저리 높고 푸른데… (衍)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여
더 보고 싶어라. (水)

달빛을 품은
메밀꽃 물결
안개인가…
그리움을 깨운다. (정)

유난히 길었던 올 여름.
무더위에 지친 마음을
갈바람이 살짝 어루만져줄까… (리)

원고때문에 머리에선 쥐가 나는데
윗층에선 공사한다고 쿵쾅거리지
마감을 앞두고 컴퓨터는 고장나지
회의는 꼭 길어져 핸드폰은 울려대고
안 도는 머리 돌리다보니 배는 고픈데
근처엔 빵 하나 사먹을 데 없지
거기다 한 사람은 바쁘다고
또 한사람은 아프다고 아예 안 나오지
그래도 어김없이 가을은 찾아오고
덩달아 책도 나왔습니다. (진)

박물관 사람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제11호

발 행 일 | 2005년 9월 15일
발 행 처 | 한국박물관회
발 행 인 | 유상옥
기 획 | 신병찬
편집회원 | 정미희 정혜리 조미연 조애경 진수옥 하영남
진 행 | 이진성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140-026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전 화 : (02) 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

본 회지의 내용은 본 회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지를 받아보고 싶은 분은 한국박물관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 표지그림 이야기

새 국립중앙박물관과 거울못의 모습이다. 넓은 녹지 공간의 중심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울못은 타원형으로, 못 둘레를 작은 동산으로 처리해 안압지를 연상하게 해준다. 수중생물을 배제한 투명한 물빛으로 관람객들의 마음을 그대로 비추어 볼 수 있는 곳이다.

한국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배우고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사회교육, 자원봉사활동, 공익적인 문화사업, 박물관 지원사업 등을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140-026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168-6, Yongsan-dong 6-ga, Yongsan-gu, Seoul, Korea 140-026

전　　화 : (02) 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